

정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 산업통상부 장관, 청주시 자영 알뜰주유소 방문해 가격 동향 점검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주 서울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방문한 데 이어, 3월 16일(월) 오전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했다.

창현주유소에 도착한 김 장관은 먼저 창현주유소 사장, 한국석유공사 비축본부장으로부터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공급가격 및 소비자 가격 변화, 주유소 방문 손님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처음 주문한 탱크로리 입하(탱크로리의 기름을 주유소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 과정을 참관한 김 장관은 "오늘로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 현장 단속,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착한 주유소도 적극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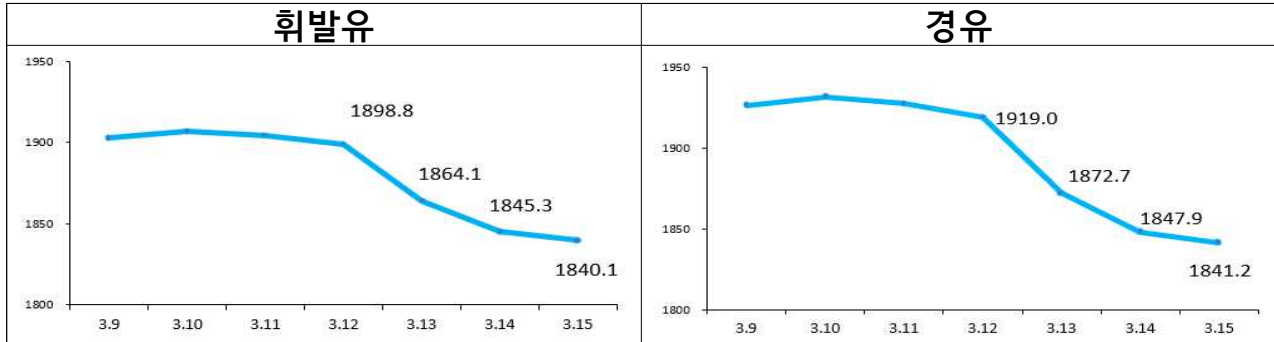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고승진 (044-203-5221)

참고

전국 주유소 가격동향 (03.15, 16시 기준)

1. 개요 (휘발유 1840.1원 △5.2원, 경유 1841.2원 △6.7원 (전일대비))

※ 3.12일(최고가격 시행 전일) 대비 (휘발유) △58.7원, (경유) △77.8원



* 당일 최종가격은 집계시간(11:00~15:00) 중 결제되었으나, 16시 이후 석유공사로 전송되는 주유소 카드결제 정보를 추가하여 산정되므로 동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판매가격 중 이상 변동 또는 특이값이 보이는 주유소에 대하여 모니터링 중

2. 주유소별 가격 동향

(단위 : 개소)

	타입	유종	3.14(토) 기준			3.15(일) 16시 기준		
			하락	변동없음	상승	하락	변동없음	상승
정유사 (폴)	직영 (총 506개)	휘발유	165	281	60	70	427	9
		경유	136	307	63	75	410	21
	자영 (총 8,676개)	휘발유	3,423	5,086	167	1,336	7,256	84
		경유	3,623	4,868	185	1,505	7,045	126
알뜰 주유소	석유공사 (총 395개)	휘발유	183	207	5	86	303	6
		경유	176	218	1	80	310	5
	도로공사 (총 209개)	휘발유	164	45	0	86	121	2
		경유	166	43	0	90	118	1
	농협NH (총 715개)	휘발유	237	470	8	40	673	2
		경유	252	452	11	41	674	0
개인 (無폴)	145개	휘발유	44	100	1	15	129	1
		경유	48	96	1	24	118	3
총계	10,646	휘발유	4,216	6,189	241	1,633	8,909	104
		경유	4,401	5,984	261	1,815	8,675	156